

치 사

산사의 청량한 바람소리는 마음 깊이 울리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 또한, 내가 이미 맑은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폭우와 무더위로 힘들었지만 곡식을 더욱 여물게 하고 계절의 문턱에서 대중과 함께 나누는 산사음악회는 모두의 마음을 청량함과 평온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열 네 번째를 맞이한 용문사 산사음악회는 호산스님의 원력에 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각별함이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사음악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나눔과 소통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인재 육성에 쓰이도록 하면서 미래의 희망이라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용문사는 모범적인 템플스테이는 물론, 세계 달마 스노보드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활동들은 우리 종단의 자부심이며 용문사와 불자의 자긍심이자 양평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눔과 소통의 하모니를 함께 만들어 주신 용문사 주지 호산스님과 청림회, 그리고 출연진 및 지역주민과 양평군 모두에게 감사의 치하를 드립니다.

배려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큰 선근을 심는 일이자 좋은 수행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정신의 의지처로서의 역할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만남과 나눔은 불교와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민중 속에 살아나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눔의 미덕과 천년고찰의 고즈넉함 그리고 역사문화유산과 어우러진 뜻 깊은 자리에서 육바라밀의 으뜸인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임을 깨닫는 인연공덕을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훈훈한 마음이 함께 하는 열린마당에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이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풍성해진 마음과 함께 저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8월 29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